

전자책의 유용성에 대하여

개요

서론

본론

1. 전자책의 유용
2. 전자책의 종류 및 사용법
 - a. PDF
 - b. 애플북
 - c. 이퍼브
3. 온라인 학습 장점

결론

서론

본 논문에서는 앞으로 ‘문학은 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전자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문학을 접하는 방법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문학에 관해서 공부한다면 다 책을 사서 공부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러나 현재는 전자기가 발달하고 전자책 같은 것을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지식을 어디에서나 습득할 수 있는 효율성이 생겼다.

전자책에서는 또 여러가지 좋은 점이 많다. 책에서 이해되지 않는 점이나 모르는 뜻이 있으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더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책에는 또 읽어 주는 기능이 있는데 눈이 안 좋은 사람에게 혹은, 어두워 책을 읽기 힘든 환경에서도 책의 내용을 알 수 있다. 또한 읽은 속도를 조절할수 있어서 이해 하기도 더 빠르다. 전자책은 갖고 다니기도 많이 편하고 책을 보고 싶을 때 바로 볼 수 있다.

지금의 전자책은 금액이 많이 저렴해졌고, 심지어 무료책이 매우 많다. 또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다. 전자책을 사용하면 나무로 종이를 만들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요즘은 온라인 영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추세이다. 이것 또한 책을 구매하여 읽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온라인에는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의 답변들과 그 답변의 해석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이해하기 더욱 쉬운 장점이 있다.

문학을 책으로만 공부해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연구하기 위하여 전자책의 사용법과 전자책의 유용, 그리고 온라인 학습의 장점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전자책의 유용

문학은 책으로만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책으로도 문학은 즐길 수 있다. 특히 전자책으로 공부하면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많다. 전자책은 종이책과는 달리 종이를 넘기는 느낌이나 손에 익숙한 종이재질의 감성을 느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책장에 가득히 꽂힌 책을 바라보며 자신의 독서취향 및 독서 양 등을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그리고 누구에게 물려줄 수도, 빌려줄 수도, 팔수도 없어서 스스로만 데이터베이스로 소장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 또한 있다. 전자책이어서 판짓 하는 경우도 일반 책보다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전자책에 대한 장점도 많다. 전자책은 종이책과 비교하여 언제든지 나만의 서재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자책이기 때문에 카테고리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취향 선호도에 따른 독서 내용을 리스트화 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자책은 어디까지 읽었는지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 전자책을 열면 자신이 전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곳을 펼쳐준다. 그리고 전자책은 기기로 책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밀줄 긋기와 메모하기도 많이 간편해진다. 그리고 전자책을 사용하면 쓸모없는 것들을 살 필요가 없고 바로 밀줄을 긋거나, 내 생각을 메모로 적을 수 있다. 밀줄 색깔도 노랑, 파랑, 분홍, 주황 중에서 고를 수 있고 밀줄을 긋는 색깔도 여러가지여서 더 유익하다. 책갈피 기능이 있어서 원하는 페이지를 표시해놨다가 그 페이지로 언제든지 원할 때 바로 갈수 있다. 또한 전자책으로 책을 읽다가 맘에 드는 구절 있으면 버튼하나만 누르면 바로 공유가 가능하다. 도서 구입과 도서 대출이 많이 편하다.비오나,눈이오나 상관없이 바로 살수도 있다.도서관에서 빌리는것도 마찬가지로 전자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게 빌리고 반납할수있다.그리고 구입이나 대출 받는 순간부터 읽을 수가 있다. 전자책을 사용하면 화면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수있다.시력이 안좋은 사람들이면 글자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어두운 환경이면 화면 밝기도 조절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자책 사용은 물리적으로 많은 필요가 없고 또 환경을 보호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은 전자책 기기 종류와 사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전자책의 종류 및 사용법

(1) PDF

전자책의 종류에는 디지털 인쇄를 위해 태어난 문서형식 PDF가 있다. 미국 어도비시스템즈에서 만든 디지털 인쇄를 위해 개발한 문서파일 유형이다. 최근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애플 맥, 유닉스, 구글 안드로이드 등 거의 모든 운영체제에서 읽거나 인쇄할 수 있으며 원본 문서의 글꼴, 이미지, 그래픽, 문서 형태 등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출판계 및 인쇄업계에서 인기가 높은 포맷이다. 글꼴 사용이 제한적인 이퍼브와는 달리 거의 모든 글꼴 종류를 사용할 수 있으며 PDF 제작 도구들이 매우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2) 앱북

또 독립된 애플리케이션 전자책인 앱북이 있다. 이퍼브나 PDF는 별도의 뷰어 프로그램이 있어야 읽을 수 있는 전자책이다. 반면에, 앱북은 독립된 프로그램으로서 책 콘텐츠라고 정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앱북은 전자책의 한 종류라기보다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따라서 별도의 뷰어 프로그램 설치 없이 간편하게 책, 잡지와 신문 같은 정기간행물, 카탈로그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다. 정해진 포맷이 없기 때문에, 표현이 자유로워서 멀티미디어 요소를 가미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듣고 보고 만지는 다이내믹한 인터랙티브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3) 이퍼브

또 디바이스에 자유롭게 구현되는 문서 형식, 이퍼브가 있다. PDF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파일 형식이지만 하지만 스마트폰과 같은 작은 크기의 디바이스 화면에서 보기 어렵고 용량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앱은 애플리케이션 이기 때문에 전문 프로그래머가 SW 개발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책의 현재로서는 한계를 지닌다. 오랜 논의와 개발 과정을 거쳐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파일 포맷인 이퍼브 2.0이 제정되어있다.

3. 온라인 학습장점

온라인 학습은 아주 많은 장점이 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일부 학생들은 대면 학습보다 온라인 학습에서 더 실력을 나타내기도 한다. 장기적인 온라인 학습은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으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들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특히 수줍음이 많거나 내성적인 학생들은 대면 수업보다 온라인 수업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더 쉽게 내기도 한다. 온라인 수업은 아주 효율적이다.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자신의 일정에 따라 공부 시간을 계획 할 수 있다. 그들은 이른 아침이든 늦은 밤이든 가장 많은 양의 에너지가있을 때 일할 수 있다. 제때제때에 모르는 문제를 인터넷에 검색할수도 있어서 빠른 시간내로 제일 정확한 답을 얻을수있다. 온라인 학습을 하면 보통 학교를 다닐때의 비용보다 많이 적다. 온라인을 하여 기숙비 등등이 없다. 또한 준비물도 복잡하지 않다. 온라인 수업을 해야할 준비물은 단지 노트북하나 아니면 쓰던 핸드폰으로면 충분하다.

결론

그리하여 문학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책을 읽는것보다 전자책 및 인터넷 온라인 학습이 더 유용하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어야만 문학을 학습 할수 있다는 주장을 많이 한다. 지금까지 책을 쓰고 와서 새로운걸 접촉하기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위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전자책과 인터넷 온라인 학습의 장점을 더 잘 파악할수 있을 것 이다. 전자시대에 들어 온 뒤에 문학을 학습할 때 인터넷의 좋은 점이 점점 눈에 띄기 시작한다. 비록 좋지 않은 점도 있다. 하지만 문학을 배울 결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